채효림

니즈(needs)를 넘어서 원츠(wants)를 충족시키는 디자이너 채효림입니다.

인간의 축복된 재능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몰입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를 넘나 들며 폭넓은 경험을 했습니다.

편견 없이, 다채로운 각도에서 사용자를 읽어내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Chae Hyorim

Chae Hyo-rim, a designer who meets the wants beyond the needs.

One of the blessed talents of humans is that we can immerse ourselves in other people's emotions.

In order to be immersed in more users, I have experienced a wide range of genres.

I read users from various angles and derive insights without prejudice.

[ringold@naver.com](mailto:ringold@naver.com)

[www.behance.net/hyorimchae](http://www.behance.net/hyorimchae)

@dawnfor\_rest